

圖書館과 生活

李 鍾 禧

寒職·辱職

내가 圖書館장이 노릇을 시작한지도 이력 저력 별써 3년이 넘는듯 하다.

圖書館이란 本來가 寒職이지만 특히 官廳같은데 걸다리로 붙어있는 所謂 特殊圖書館 어쩌구 하게 되면 이걸 寒職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辱職이다.

사람을 사람 待遇를 안 하려고 든다.

官廳은 뭐니 뭐니 해도 權勢 잡은데가 第一이다.

知識이야 있건 없건, 人格이니 技能이니 뭐 이런것까지 따지지 않더라도 水準 以下の 存在들마저 설치는 데가 官廳이기도 하다.

일에 對한 恣意이 오히려 辱되고, 良心이나 其他 은갖 善惡들이 그 살뜰한 荆棘의 受難을 치뤄야 하는 逆說의 道場이기도 한 것이다.

23萬冊

처음 내가 圖書館을 맡아가지고 나올 때는 그런대로 내 나름의 여러가지 癖한 꿈과 期待를 걸어 보기도 했었다.

그것이 해가 바뀌고 날이 더 할 수록 은갖 衆愚들 틈바구니에서 시달림을 받다 보니 그만 心臟이 터질 지경이다.

倭政時에 林靖一이란 圖書館長이 있었는데, 우리 交通圖書館은 순전히 이 林館長 個人的 힘에 의하여 이룩되었다하여도 過言이 아닐 程度로 이 친구의 功績은 大端했던 모양이다.

서울大圖書館·國立圖書館과 어깨를 겨누고, 國內 三大圖書館의 하나로서 藏書 無慮 23萬冊을 헤아리는 大圖書館으로 成長한 것도 오로지 林館長 個人的 活躍의 힘으로 된 것이라 한다.

그後 解放을 거쳐 우리들 손으로 들어와서 6·25에 이르기까지 고스란히 그 體制를 維持해 왔었으나, 6·25動亂 때 爆擊을 받은 우리 圖書館은 떠만 양상하게 남았을 뿐 그 아까운 冊들은 하나도 안 남기고 깨끗이 타버리고 말았다.

現在 우리 圖書館의 3萬餘冊의 藏書는 釜山 避難當

時 市場의 古本商에서 하나 둘 주어 모아 기들을 잡은 財産인 것이다.

이러한 歷史的 터전 위에 내가 赴任하게 되었으니 그 짐인들 오죽이나 무거우랴.

最少限度 倭政時 水準만치라도 추어 올려놓아야만 내 體面도 설게 아니겠는가.

23萬冊을 만들어 놓자면 1년에 萬冊씩 사드라도 20년이 걸려야 한다.

내 平生事業으로도 다 하지 못할 일이다.

그 外에 地方貸出制度의 復活, 巡迴文庫의 強化, 參考業務의 擴充等等 할일이 그야말로 泰山같다.

東洋의 科學

以上은 當然히 내가 해야 할 公的인 使命이지만 私的으로도 이것 저것 여러가지 癖한 構想이 꽤 많았던 것만은 事實이다.

某人的 글에 東洋의 科學은 秘訣로 傳해온다는 根本 記憶이 있다.

이 東洋의 秘訣을 西洋式으로 陽性化해 보자는 것이다.

體系를 세워서 누가 보드라도 알아 볼 수 있게 權威 書を 한번 꾸며 보자는 것이다.

오늘날 學問하는 이치고 이 事業이야말로 한번 해 볼만 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開明(甲午更張)以來로 西洋學을 익혔고, 生活樣式마저 西洋化해 가고 있는 이즈음 숨어 있는 東洋의 叡 智들을 잘 골라서 이놈을 西洋式으로 巨大하게 피라미를 構築해 놓는다면 偉大한 壯觀을 이룩할 것이다.

미련하게서 諸子百家를 모조리 涉獵하려고 들게 아니라 그 中에서 가장 核心이 되는 秘傳의 옛센스들만 골라서 料理를 한다면 辟 效果의인 結實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願은 이것이었다.

東洋의 옛센스를 골라서 料理하는것.

西洋式으로 堅固하고도 壯嚴한 建築을 이룩하는것.

바로 이것이었다.

於焉 3年の 歲月이 흘렀으나 그 실마리조차 찾지 못

하고 基礎工事的 번두리만 서성대다 만 感이 있으니 참 서글프기 그지없는 心情이기도 하다.

每事가 다 그렇게 쉬운 일은 없지만 내가 모든 것을 犧牲하고 圖書館에 들어 올적에는 그래도 제법 무엇을 좀 할것 같은 精力도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부닥드리고 보니 애초에 計劃했던 것과는 여러가지로 蹉跌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無所得의 所得

曹溪寺에서 比丘僧大會가 있을 때부터 佛教와 가까이 하면서 그동안 佛教의 惠澤은 꽤 많이 입어온것 같다.

某某한 比丘僧側의 所謂 高僧이라는 분들을 만나 보고 나의 懷疑를 풀어 볼 事端을 마련하려고 두던하나 애를 써 보기도 했지만 結局은 東洋의 隱遁思想의 理論의 根據를 體得한데 不過했다.

美國사람들 같은 開拓精神보다는 東洋의 이 妥協主義가 좀더 合理的이라는 理論의 根據말이다.

淵明의 歸去來辭나 李白의 酒仙의 境地를 理解할듯도 하고, 혜겔의 集大成보다는 파스칼의 知性이 좀더 貴한듯이 보이기도 하게 되었다.

人生을 아득바득 살기 보다는 한발쯤 물러서서 觀望하는게 어른스러운듯이 여길줄도 알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青年氣稅는 가고 차츰 老衰現象이 일어나는 兆朕임에도 나는 이걸 무슨 得道過程이나 되는듯이 錯覺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느 것이나 道아닌 것이 없다고 했듯이 여기에다 구지 道를 卍집어 들릴 性質의 것은 아니다.

다만 나의 心境變化를 돌이켜 보면 그만이다.

正邪長短을 卍집어서 可否를 판가름할 수도 없고, 어느것 하나 宜當치 않은 것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나의 所得이라면 所得이라고나 할까.

般若의 世界에서 말하는 無所得의 所得일는지도 모른다.

解脫者

佛教애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나는 事實 佛教를 알므로서 비로소 마지막 凝結되었던 마음의 구름을 깨끗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어딘가 모르게 늘 마음의 한 구석에 한가닥 釋然치 못한 무엇인가가 걸려 있었는데 佛教에서 이것을 아주 澈底하고도 確然하게 밝혀주었던 것이다.

佛教는 나에게 安心立命의 方法과 大自在·大自由力發揮의 方法을 가르쳐준 唯一의 恩人이다.

西洋學은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도 複雜하게 스리 벌려놓고 難澁하게 꼬치 꼬치 캐는 傾向이 있는데 比喩

東洋學은 까다롭고 錯雜한 事象을 펼 수 있는대로 純化하고 淨化시켜서 單純의 極致와 妙를 得하려는 傾向이 濃厚한듯하다.

東洋에 있어서도 特別 이것은 佛教에서 強調되고 있다.

一字 無識의 一個 樵夫(六組스님)가 若冠 24歲에 道通하여 釋迦牟尼로부터 물려내려오는 「바리메」를 이어 받을 程度라면 이것은 單純化에서도 그 最高絶頂을 이루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道가 노리는 것은 學問이나 知識이 아니다.

더군다나 身言書判은 勿論 더욱 아니다.

오로지 宇宙人生에 對한 根本理致의 覺醒과 解脫이다.

學者는 知識과 研鑽이 기둥이며, 선비는 容儀와 言動이 爲主겠지만, 道人은 解脫이 目的이다.

解脫者에게서 구지 言動이나 容儀를 求하지 말며 學究의 發顯이나 知識의 散發을 期待하지 말 것이다.

오직 正覺의 程度나, 解脫感의 氣分을 맞볼 것이다.

野와 史

아인슈타인博士나 렛셀卿의 눈빛을 보면 高明한 學者의 玲瓏한 聰氣를 느낀다.

7·8旬이 넘은 老境에 어떻게 이렇게 밝은 눈을 지닐 수 있을까 할 程度로 가을 하늘같이 시원하고 서늘한 눈을 지닌다.

나는 「로맹」의 「생각하는 사람」을 유난히 좋아하는 便이지만 슈바이처博士가 골똘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로맹」의 「생각하는 사람」을 문득 聯想하게 된다.

깊숙히 패인 印堂골에 몇줄기 굽적한 山脈을 이루고 隆隆히 솟은 窠대는 代表的인 虎鼻의 相을 보게 된다.

이분이나 간디翁의 印象에서는 澈底한 人間의 誠實性和 無限한 慈悲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學者와 道人 두 系列 人間像의 서로 다름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人間의 誠實性和 慈悲心, 이것이 道人을 낳는 가장 基本的인 要素인것 같다.

그것의 深淺如何에 따라 得道與否와 聖賢의 成·不成을 左右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學者는 오로지 先天的인 聰氣與否로서 그 岐路가 마련되지만 道人은 誠實과 慈悲心 없이는 到底히 그 實을 거둘 수 없다고 본다.

勿論 學者도 後天的인 努力이 必要함은 두 말 할 餘地도 없겠지만 타고난 聰明이 不足해 가지고서는 아인슈타인이나 렛셀卿같은 大學者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道人에게 있어서도 워낙 豊富한 天惠의 誠實性과 慈悲心을 지니지 않고서는 大成할 수 없음은 勿論이다.

聖賢을 이룩하자면 그 위에 學者에게 못지 않은 깊고 넓은 智慧의 生得이 있어야 함은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智慧도 學者와는 달리 어디까지나 그 밑받침이 誠實과 慈悲에 根據된 것이 아니면 안된다.

이것이 學者와 聖賢과가 서로 區別되는 가장 焦點의 인 要素인 것으로 안다.

論語 雍也篇에 보면 이런 句節이 있다.

「質勝文則野요, 文勝質則史니, 文質이 彬彬然後에 君子니라.」

眞實됨이 文飾보다 이기면 野鄙하고, 文飾이 眞實됨보다 이기면 史官이니(史官 則 文書를 맡은 官員=듣고 보는게 많아 見聞이 넓고 일에는 익으나 誠實됨이 不足할 憂慮가 있다) 文質이 適當히 調和를 이루어야만 君子(理想型의 人間像)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質이란 忠信 誠實을 이루는 바탕을 말하는 것이니 道人의 要素라 할 수 있고, 文이란 簡單히 말해서 學問이라 할 수 있으니 學者의 要素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孔子님도 自己가 가장 理想의이라고 생각하는 人間型인 聖賢君子의 基本要素로서 文質의 調和를 願했던 것이다.

道人의 要素와 學者의 要素의 調和, 果然 우리가 생각해도 理想型의 人間像을 그려 볼 수 있다.

슈바이처나 잔디나 링컨 같은 이에게서는 어딘가 모르게 「野」의 要素를 느끼게 되고, 아인슈타인이나 렉셀 같은 이에게서는 「史」의 要素를 느끼게 되는 것 같기도 하다.

司書職의 運用策

애걸 하다 보니 그만 엉뚱한데로 話題가 번지고 말았다.

어떻든 사람애기가 나왔으니 그걸 좀더 繼續해 보기로 한다.

내가 요세와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이 사람問題가 加意하게 움직여지질 못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弊端이 이만 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주 큼직하게 人類歷史를 뒤져 보드라도 우리들의 榮光된 歷史의 한토막도 사람으로 因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또한 汚辱된 歷史의 한케이지도 사람을 잘못 만남으로 해서 記錄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 事實이다.

특히 後進國家에 있어서 教育事業이나 文化事業을 營爲하려면 人材難·財政難·環境難等等으로 해서 여

간만 苦楚를 겪는게 아니다.

近代的인 圖書館事業이 우리나라에서 싹트기 시작하기는 開化以來로 數十年이 된다고 하겠지만 本格的으로 그것이 推進되기는 解放後 各 大學圖書館의 整備事業이 이루어짐으로 부터 비롯된 것으로 알며, 5·16을 契機로 한層 더 加速度的으로 이것이 政策化되는 한便 大學의 專攻科目으로 登場하면서 하나의 뚜렷한 科學으로 正規的인 教育機關을 通한 人材養成과 兼해서 名實共히 圖書館事業의 적지않은 國家的 關心을 보여준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렇게 有能한 人材들을 養成하면서도 그 採用의 方途에 있어서 適切한 妙策을 얻지 못하고 있는 感이 없지 않다.

私設團體는 別途겠지만, 官公署에 있어서는 大學의 圖書館學科를 卒業하고 正司書資格證을 가진 이라도 國家에서 施行하는 5級乃至는 4·3級公務員任用考試에 合格한 者가 아니면 採用할 수 없게 되어 있다.

官公署에 있어서는 5級公務員은 고사하고 技能職이나 雇員 TO를 얻기도 어려운 處地에 있다.

大學의 圖書館學科를 나오고도 高等學校 卒業者가 應試하는 技能職이나 5級公務員任用考試에 應試한다는 것은 自己 專攻科目은 하나도 살리지 못하면서 다시 高等學校課程으로 되돌아가서 試驗을 치루어야 하는 立場이므로 차라리 갖 高等學校를 나온 사람들 보다는 不利한 條件에서 應試하여야 하는 矛盾이 생기게 된다.

사람을 直接 쓰려고 하는 官廳에서는 圖書館學科 出身을 要求하고 있는데, 總務處에서 施行하는 5級公務員任用考試에 合格한 사람은 圖書館學科 出身 보다는 高等學校 卒業者가 거의 全部를 차지하다시피 되어 있으므로 正規大學에서 圖書館學을 專攻한게 도리어 就職에 不便을 느끼게 되는 傾向이 생기게 된다.

그렇다고 大學까지 나온 버전한 學士들이 日當 百원 짜리 夫賃을 받고 就職한다는 것도 使用者側에서나 雇員者側에서나 서로 괴로운 일이며, 또한 일도 제대로 圓滿하게 잘 遂行되지 못하게 된다.

내 經驗에 비추어 생각해 본 바로는 圖書館學科出身의 正司書資格證을 가진者는 4級乙類로, 또 準司書資格證을 가진者는 5級乙類로 必要에 따라 언제든지 使用者의 마음대로 採用해 쓸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專門職教育을 받고 그에 應分한 國家公認의 資格證을 發付받은 者에게는 언제든지 國家의 要請에 따라 그 直接 使用官署에서 自由스럽게 採用해 쓸 수 있도록 되어야만 機動性있는 人事行政이 이루어지며, 그時 其時 必要에 따라 有效適切한 人材를 골라 쓸 수 있게 된다고 믿는 것이다.

國家의 政策的 保護

이런것뿐 아니라 元來가 人事問題란 微妙한 것이어서 그 運用에 있어서 有能한 應用力의 發揮와 良心의 인 大局의 判斷活用이 없으면 死文(人事規程類)의 奴隸가 되어 오히려 立法趣旨나 人事原理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되어 事業의 進展에 커다란 支障을 招來하게 되는 수가 許多하게 있는 것이다.

管理職에 있는 者는 언제나 그 能·不能 如何로서 自己가 맡아가지고 있는 그 業體의 運命을 左右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대신 一旦 한 單位 所屬의 長에게 責任을 맡긴 以上에는 그 單位 所屬長이 活潑하고 自由스럽게 所信것 自己力量을 發揮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

行政學書에도 頻繁히 나오는 問題지만 언제나 責任과 權限은 並行되는 것으로서 이 原理의 採用이 그릇될 때에는 各 單位所屬長의 能力과 力量을 沮害하여 漸次的으로 커다란 行政의 沈滯을 불러 일으키고야마는 問題가 擡頭하게 되는 것이다.

無能하고도 좋지 못한 者가 要所 要所에 곳곳이 끼어들어 일을 못하게 망치고, 우물 우물 엉뚱한 凶計를 일삼아 妨害를 하게 되면 그 몇몇 사람으로 因해서 被害를 입게되는 影響力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기 저기 퍼져서 社會全般에 걸쳐 終末에는 큰 破綻을 가져오고야 마는 것이다.

우리가 한 社會를 營爲해 나갈 때 이러한 毒素들의 跋扈야말로 가장 警戒해야 할 일이지만 依例 여러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社會라는 한 덩어리 안에는 적지않은 衆愚들이 끼어들게 마련이며, 同時에 이러한 者가 偶然한 機會에 愚가 愚의 줄을 타서 適當히 權限

을 發揮할 수 있는 자리에 앉게 되면 그 職場은 그로 因해서 終末은 衰退一路를 걸고야마는 悲劇을 演出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해서 人事問題란 언제나 그 明快한 運用의 妙를 얻도록 細心한 注意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愚昧하고 凶測한 者가 單 한사람만 끼어 있어도 愚는 愚를 부르고, 明은 明을 부르는 原理에 依해서 愚의 數가 부채살처럼 늘어날 憂慮가 多分히 있는 것이다.

언제나 이 愚凶의 存在들은 氣를 못 펴도록 人事政策上으로 巧妙하게 措處·團束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한 社會가 發展하려면 그 社會의 指導層에 에릿뜨들이 모여야함은 勿論이다.

이 에릿뜨들의 強力한 團結力에 依해서 衆愚들의 跳梁을 막고 또한 有能한 人材들을 果敢하게 拔擢登用하여 活潑하고 清新한 氣風을 造成해야 한다.

明이 衆愚의 煙幕에 가리워지지 않기 爲해서도 明의 孤立이란 참 危險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우리 圖書館社會와 같이 淸寒하고 매마른 職場에 있어서는 人材를 모으기가 極히 힘들며, 그 管理者가 ამ만 有能한 者라 하더라도 까딱 잘못 하면 衆愚에 가리워 힘을 못쓰게 될 念慮가 多分히 있는 것이다.

여기에 圖書館事業의 가장 어려운 點이 있다 해도 過言은 아니리라.

막지마오로 내가 여기서 提言하고싶은 것은 司書職에 대해서도 一般 教師職이나 法官들과 같은 生活保障策으로서의 手當制度創設과 豫算面·環境面에서도 너그러운 國家的 保護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強力히 主張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交通公務員訓練院 圖書館)

1965年度 協會費를 早速히 納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國의 團體 및 個人會員께 부탁 드립니다. 第 11次 定期總會에서 承認하여 주신 1965年度 事業은 위에 서 본바와 같이 國庫補助事業 6個 自體事業 8個, 合하여 14個種의 事業을 하여야 합니다. 이 많은 事業을 成功裡에 目的을 達成하여 우리들의 權益을 높이고저 하는 共同 目標를 이룩 할 수 있도록 協助를 바랍니다. 一線에서 苦生하시는 會員들의 어려운 事情이 있을줄 思料되오나 早速한 期日內에 會費를 納付하여 주시도록 最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 務 局